

1. 머리말

모처럼 양돈업계가 호황의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포유자돈 및 이유자돈의 폐사를 줄이고 육성돈과 비육돈을 철저히 관리하여 출하두수를 늘린다면 이제 양돈업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

미국에서 발생한 소의 광우병,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한 가금 인플루엔자 등 가축의 질병 중 축산물에 사람에게 위협적인 요소가 있으면 소비감소로 이어진다는 평범한 진리를 실감나게 하고 있다. 즉 미국에서 광

우병 발생, 아시아 지역에서 가금 인플루엔자 파동, 국내 소의 브루셀라 감염 보도 등의 영향으로 돼지고기 소비대체가 빠르게 일어나며 돼지 거래가격은 설 이전부터의 강세가 3월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때문에 설 이후 의례적인 육류 소비 위축세에도 불구하고 돈가 강세 흐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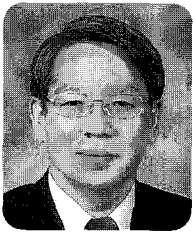
돼지 질병에 의한 피해를 줄이면 줄일수록 양돈사업의 수익이 극대화되는 시기에 포유자돈 설사병, 이유자돈 소모성 증후군(PMWS), 글래서씨병, 복합 호흡기 질병 등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이러한 질병을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충실한 자돈 생산과 성공적인 비육으로 출하두수를 늘려야 한다.

본 고에서는 이유자돈 전후에 많이 발생하여 피해가 큰 돼지 글래서씨병(다발성 장막염)의 발생상황, 임상증상, 부검 소견 및 효과적인 대책에 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2. 돼지 글래서씨병의 원인과 발생 상황

1910년 Glasser씨가 최초로 자돈에서 발열과 섬유소성 장막염 및 관절염이 특징인 본 질병을 관찰하여 보고한 후 여러 학자들의 연구결과 원인세균은 *Haemophilus parasuis*이며 현재

돼지 글래서씨병의 발생 증상과 효과적인 대책



예 재 길 상무
한국엘랑코동물약품㈜ 연구개발





<그림 1> Haemophilus parasuis 세균을 인공감염시킨 돼지의 부검소견, 대부분의 복강 장기에서 섬유소성 삼출액이 있으며 심한 복막염에 의하여 결장, 맹장 및 회장 부위에 섬유소성막이 관찰되었다.



<그림 2> 글래서씨병의 특징인 복막, 장간막, 흉막 등에 섬유소성 물질이 관찰되고 있는 병변.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유럽, 캐나다, 일본 등 전세계적으로 발생하여 돼지의 성장부진과 폐사율을 증가시키는 질병으로 확인되고 있다.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본 원인균을 분리하였으며 혈청형을 구분한 결과 혈청형 1~15형까지 분리하였다. 많은 혈청형 중에서 혈청형 5가 가장 발병율이 높고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질병은 이유 직후 이동, 장기간 수송, 환기 불량, 먼지 많은 돈사, 과밀 사육 등의 여러 가지 스트레스 요인이 많으면 발병율이 높아지고 폐사율도 높다. 특히 포유기간을 단축시키고 모돈과의 조기격리 사육이 보편화되면서 자돈의 폐사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본 질병의 발생도 많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석호봉 교수와 필자 등이 돼지의 다발성 장막염 및 관절염(글래서씨병)의 원인균 조사 및 분리균의 병발성 연구를 하였다. 연구결과 Haemophilus parasuis와 유사한 75주를 분리하였으며, 그 중 13주는 표준균주와 생화학적으로 동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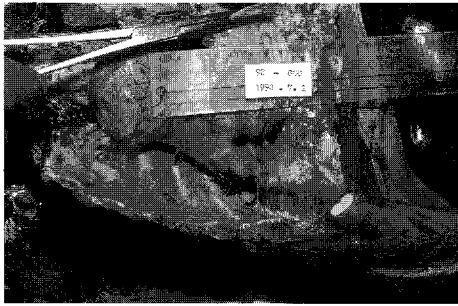
3. 돼지 글래서씨병의 임상 증상

임상증상은 발열, 침울, 호흡곤란, 관절 종대, 파행 및 움직이기를 싫어한다. 대부분은 이유자돈에서 발병하며 주요 임상증상으로는 기침, 호흡곤란, 체중 감소 및 피모가 꺼질해진다. 그리고 자돈 폐사율이 높아지고, 생산성이 저하된다.

육성돈에서 발병할 경우 만성적인 경과를 취하면서 기침, 호흡곤란, 증체량 감소, 파행 및 피모가 거칠어지지만 폐사율은 증가되지 않는다. 그러나 흉막폐렴이나 파스튜렐라성 폐렴과 복합 감염되면 폐사되는 돼지가 많아진다. 임신돈에 급성으로 감염되면 유산할 수도 있다.

4. 돼지 글래서씨병의 부검소견

글래서씨병의 특징적인 소견은 복막, 장간막, 흉막, 간포막 등에 과도한 섬유소성 삼출물이 존재하며 복강에는 복수, 흉강에는 흉수



〈그림 3〉 글래서씨병의 특이적인 소견인 폐장이 벽측홍막에 유착이 벽측홍막에 유착.



〈그림 4〉 심한 섬유소성 심낭염 병변 관찰.

가 저류되어 있다. 폐장기에는 출혈병변이 관찰되지 않는다. 그러나 홍막폐렴균이나 파스튜렐라균과 복합 감염되면 출혈병변이 형성된다.(〈그림 3〉 참조)

또 폐장기는 벽측홍막에 유착되어 있고(〈그림 3〉 참조), 섬유소성 심낭염 소견(〈그림 4〉 참조)이 관찰되며 관절의 활액낭에 섬유소성 삼출물이 저류되는 경우도 있다.

5. 돼지 글래서씨병의 효과적인 대책

가. 치료대책

지금까지 여러 양돈장에서 글래서씨병이

발생하여 폐사가 일어나고 있는 돈군에 많은 항생제를 개체 주사하여 왔다. 최근 엘랑코 연구자들은 글래서씨병의 원인균인 *Haemophilus parasuis*균과 그 감염증에 대한 연구결과 티미코신에 대한 최소 발육억제 농도는 0.125~2 μ g/ml(DeRosa, 2000)이었다. 펄모틸 200ppm 투여한 실험돈군에 *Haemophilus parasuis*균을 인공접종 시킨 후 관찰 결과 본 병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글래서씨병 발생시 초기에 펄모틸을 사료 톤당 2kg씩 3주간 투여하면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 그러나 사료섭취량이 감소하면 음수로 투여해야 한다.

돼지 글래서씨병은 이유 직후 이동, 장기간 수송, 환기 불량, 먼지 많은 돈사, 과밀 사육 등의 여러 가지 스트레스 요인이 많으면 발생율이 높아지고 폐사율도 높다. 특히 포유기간을 단축시키고 모돈과의 조기격리 사육이 보편화되면서 자돈의 폐사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본 질병의 발생도 많아지고 있다.

임상증상은 발열, 침울, 호흡곤란, 관절 종대, 파행 및 움직이기를 싫어한다. 대부분은 이 유자돈에서 발병하며 기침, 호흡곤란, 체중 감소 및 피모가 꺼질해진다.

나. 예방 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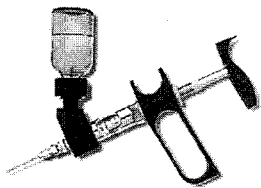
효과적인 예방대책으로는 이유자돈 혹은 외부 돼지 전입시부터 펠모틸 100을 사료톤당 2kg기준으로 3주간 투여하면 글래서씨병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고질적인 질병인 홍막폐렴, 파스튜렐라성 폐렴까지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중돈 생산 양돈장의 경우 자돈사 전입 직후 및 육성 비육 돈사 전입시 펠모틸을 사료첨가하여 모든 만성 복합 호흡기 질병을 동시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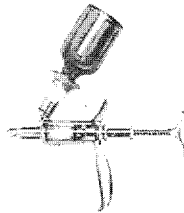
글래서씨병 발생시 초기에 펠모틸을 사료 톤당 2kg씩 3주간 투여하면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 그러나 사료섭취량이 감소하면 음수로 투여해야 한다.

근절시켜 중돈의 위생상태와 생산성을 향상시킨 경우가 많이 있다. **양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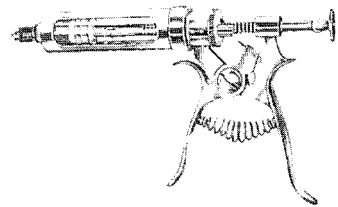
각종 주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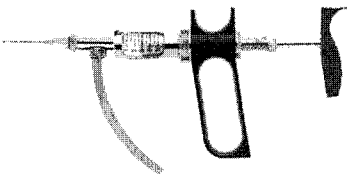
① SOCOREX 연속주사기(병정착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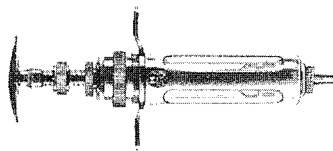
② FERROMATIC 주사기(5ml, 30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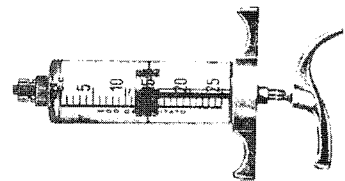
③ REVOLVER 주사기(30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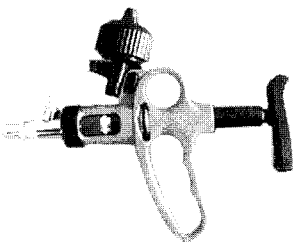
④ SOCOREX 연속주사기(1-5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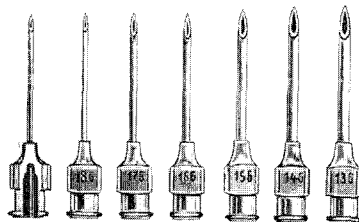
⑤ 철제주사기(10, 20ml)



⑥ P.V.C 주사기(반영구) 10ml, 20ml



⑦ P.V.C 연속주사기(2ml, 5ml, 10ml)



⑧ 주사기용 철침

KW 강화축산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4동 694-1 우성아파트 101동 1407호

☎ (02)305-2548, (02)372-2461

H·P : 011-9787-2548

FAX : (02)308-1030